

제4권 (1단원 : 예수님의 비유)

(제6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 본문 : 누가복음 16:19-31

· 요절 :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눅 16:31)

· 찬송 : 231장(새찬송가 240장), 544장(새찬송가 492장)

대체로 사람들은 가진 재산이나 쌓은 업적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이나 빛나는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일생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한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간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인색한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은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죽은 다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에 대한 분별은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과 교훈을 줍니다. 호화로이 살았던 부자와 비천한 거지였던 나사로가 정작 죽어서는 정반대의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께 대한 신앙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왕족이나 입는 값비싼 자색옷을 입고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즐겼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대를 얹으며 그 부잣집 대문 곁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하였으니, 그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에서 나사로를 내어 쫓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동정의 손길을 베푼 일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병들고 쇠약해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동리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불행한 거지의 죽음을 동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나사로의 운명이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 후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토록 유복한 일생을 살았던 부자를 부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부자의 영혼이 음부 가운데 떨어진 줄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나사로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풍족한 중에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야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장차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보자,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어 음부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기회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부자가 많은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허탄한 일에 허비한 데 반하여, 비록 가난하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므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으므로 받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아직 세상에 살아 있는 자기의 다섯 형제가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증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부자가 재차 호소했으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거나 환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하신 대로, 마음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쉬임 없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썩어질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복락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일에 힘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